

해외파 총동원 벤투호 이라크와 한판 승부

오늘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 홈경기
침대축구 맞서 선제골·다득점 필수
손흥민 등 '베스트11' 활약 기대

'침대 축구'는 핑계일 뿐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상대가 그라운드엔 누울 틈을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이른 선제골과 다득점이 필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 축구연맹(FIFA) 랭킹 70위 이라크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 홈경기를 펼친다. 레바논과 2차전은 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벤투호는 지난 6월 마무리된 2차 예선에서 6전 무패(5승 1무·22득점 1실점) 행진을 앞세워 당당히 조 1위로 최종예선에 진출하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FIFA 랭킹 36위인 한국은 최종예선 B조에서 이란(26위), 아랍에미리트(UAE·68위), 이라크, 시리아(80위), 레바논(98위)과 한 조에 묶여 1~2위 팀에 주어지는 '본선 직행 티켓'을 놓고 경쟁한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카타르로 가는 힘든 여정'의 상대가 모두 중동팀으로 구성돼 '침대 축구'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최종예선 상대 중에선 침대 축구로 지목하기 어려운 나라도 있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는 예외로 봐야 한다.

벤투호는 최종예선 1, 2차전 홈 경기를 위해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 이재성(마인츠),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문환(LAFC), 황인범(루빈 카잔), 남태희(알두하일), 김민재(페네르바체), 손준호(산둥 타이산), 김

영권(감바 오사카) 등 핵심 해외파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여기에 최근 K리그 무대에서 발끝 감각이 물이 오른 이동경(울산)을 비롯해 조규성(김천), 송민규(전북) 등 젊은 K리그 공격수들과 이용(전북), 홍철(울산), 박지수(김천), 이기제(수원) 등 경험이 풍부한 수비수들도 호출했다.

최종예선은 매 경기가 결승전으로 생각될 만큼 승점 관리가 중요하다. 모든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지만, 패배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야만 한다.

최종예선부터는 상대 팀들과 전력 차가 크지 않은 만큼 선수들은 '방심'이란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라크와 최종예선 첫 대결 결과는 대표팀의 사기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만 한다. 벤투 감독 역시 이라크전 중요성 때문에 '해외파

총동원령'을 내렸다.

한국은 이라크와 역대 상대 전적에서 7승 11무 2패로 앞선다. 1984년 4월 LA 올림픽 최종예선전에서 0-1로 패한 이후 한국은 최근 10경기(4승 6무) 동안 지지 않았다.

하지만 무승부 경기를 돌아보면 2-2 무승부 두 차례, 1-1 무승부 한 차례, 0-0 무승부 3차례(2007년 아시안컵 4강전 승부차기 패배 포함)로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라크와 대결에서 '침대 축구'는 사실상 볼 수 없었다.

이라크는 2차 예선 C조에서 이란(6승 2패)에 이어 5승 2무 1패의 준수한 성적으로 조 2위를 차지하며 최종예선에 올랐다.

무엇보다 이라크 대표팀의 사령탑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본선 무대에 나섰던 딕 아드보카트(네덜란드) 감독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한국 축구와 인연을 끊은 지 15년이 넘었음

에도 태극전사들의 성향을 잘 아는 아드보카트 감독은 이라크 대표팀을 이끌고 이달 초부터 스페인과 터키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조직력을 다진 뒤 지난달 29일 방한해 현지 적응 훈련 중이다.

'명장'으로 손꼽히는 아드보카트 감독의 성향을 볼 때 한국을 상대로 '시간 끌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은 적다. 이라크 선수들 역시 중동의 강팀이라는 자존심이 강한 만큼 벤투호와 강하게 부딪힐 전망이다.

벤투호는 흑사라도 모를 '침대 축구'를 피하기 위해선 이른 선제골이 중요하다.

중동 무대에서 전뺏가 굵은 남태희(알두하일)도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집중해서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오면 꼭 살려 득점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벤투호 공격진의 핵심 전력인 손흥민과 황의조가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벤투호에 합류해 실제로 동료와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1일 하루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이라크전 승리를 위해 A매치 경험이 풍부한 손흥민과 황의조를 비롯해 '베스트 11'을 총가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도쿄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체 4강전(스포츠등급TT4-5) 대한민국 김영건-김정길 조와 프랑스 플로리앙 메리앙-니콜라 사방 에라 조의 복식 경기. 김정길(오른쪽)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장애인체육회-aT 선수 취업 지원 업무협약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지역장애인 체육 발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해 운동에 전념토록 지원하게 된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019년부터 '장애인선수 취업 연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현재까지 한전KDN 22명, 한전KPS 19명 등 41명을 공공기관에 취업시켰다. 또 대신기공 10명, 포스코 6명, 호반건설 10명, 포스코 ICT 5명 등 총 31명을 민간기업에 연계시키는 등 총 72명이 취업했다.

그동안 전남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번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선도적으로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체육선수를 고용하는데 도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탁구 남자단체 김영건·김정길 은메달 확보

(광주시청)

4강서 프랑스 2-0 제압 결승 진출
오늘 중국과 금메달 주인공 결정
서수연도 크로아티아 꺾고 결승

대한민국 장애인 탁구 대표팀이 2020 도쿄 패럴림픽 단체전 준결승에서도 순항하며 금메달 수확에 한발 다가섰다.

백영복(44·장수군장애인체육회), 김영건(37), 김정길(35·이상 광주시청)은 1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도쿄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체 4강전(스포츠등급TT4-5)에서 프랑스의 플로리앙 메리앙, 니콜라 사방 에라, 막심 토마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한국 탁구는 TT4-5 체급 단체전에서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다. 김영건은 이번 대회 개인 단식(TT4) 은메달에 이어 메달 두 개를 목에 건다.

한국은 프랑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패럴림픽 탁구 단체전은 올림픽과 같이 복식-단식-단식 순으로 치러지며, 이세 경기 중 두 경기에서 먼저 이기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한국은 1복식에서 김영건-김정길 조가 메리앙-사방 에라 조에 3-1로 이긴 데 이어 2단식에서 김영건이 토마를 18분 만에 3-0으로 제압해 손쉽게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백영복-김영건-김정길 조는 2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결승에서 '강호' 중국

과 금메달의 주인공을 가린다.

김정길은 "2016년도에 중국을 이기고 결승에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때처럼 이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전 결승에서 터키의 압둘라 외즈튀르크에 패한 김영건은 앞서 단체전에서 터키를 꺾고 우승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터키는 단체전 8강에서 슬로바키아에 저 탈락했는데, 김영건은 "복수는 아쉽게 됐지만, 중국이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다. 예상대로 중국이 올라올 텐데 내일 아침 경기 준비 잘해서 이기겠다"고 했다.

화기에예한 분위기로 믹스트존을 벗어난 이들은 "야, 금메달 따자"고 유쾌하게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여자탁구 TT1-3 체급 단체전에 나선 서수연(35·광주시청), 이미규(33·울산시장애인체육회), 윤지유(21·성남시청)의 마지막 판문 역시 중국이다.

서수연, 이미규, 윤지유는 이날 대회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의 헬레나 드레타르 카리치-안델라 무지니치 조를 2-0으로 잡고 결승에 진출, 은메달을 확보했다.

개인 단식에서 서수연이 은메달, 이미규와 윤지유가 동메달을 따내면서 이들 세 명은 모두 이번 대회에서 메달 두 개씩을 획득한다.

리우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합작한 서수연, 이미규, 윤지유는, 이번 도쿄 대회에서는 정상을 노린다.

단식에서 중국 류징에 분패한 '말안나' 서수연은 "개인전 때 중국에 쳐서 단체전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단체전에서는 꼭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여자부 7일 신인드래프트 페퍼, 우선지명 6장 중 5장 사용

한국프로배구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에 도전한 43명이 떨리는 마음으로 7개 구단의 선택을 기다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청담 리베라 호텔에서 2021-2022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KOVO는 1일 43명의 드래프트 신청자 명단을 공개했다.

18세 이하 대표 출신인 강릉여고 박수연(레프트)과 대구여고 박사랑(세터),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낸 세화여고 김주희(레프트), 차유정(센터-레프트) 등이 프로구단의 관심을 얻고 있다.

드래프트 참가자 중 키가 가장 큰 강양여고 센터 이예담(185.1cm), 공격력이 뛰어난 일신여고 레프트 박은서도 주목해야 할 선수다. 2021-2022시즌부터 V리그에 참여하는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은 우선 지명권 6장 중 5장을 쓴다.

페퍼저축은행은 자유계약선수(FA) 하혜진을 영입하며 원소속구단 한국도로공사에 지난 시즌 연봉 200%인 2억원과 신인드래프트 6명 우선 지명권 중 4순위 지명권을 넘겼다.

페퍼저축은행이 우선 지명을 마치면, 지난 시즌 최종순위 역순을 기준으로 현대건설 35%, KGC인삼공사 30%, 한국도로공사 20%, IBK기업은행 9%, 흥국생명 4%, GS칼텍스 2%의 확률로 추첨해 지명 순위를 정한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연다. /연합뉴스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오늘 티오프

디펜딩 챔피언 이원준
박상현·서요섭과 경기

KPGA 코리아투어 제2회 비즈플레이 전자신문오픈(총상금 6억원 우승상금 1억 2,000만원)이 2일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에서 개막된다.

1라운드 조 편성 결과 '디펜딩 챔피언' 이원준(37·BC카드)과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우승자이자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2위인 박상현(38·동

아제약), 직전대회인 '제64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우승하며 2연속 우승을 노리는 서요섭(26·DB손해보험)이 동반 플레이에 나선다. 오전 11시 30분 1번홀(파5)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25조다.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와 제네시스 상금순위 1위인 'SK 텔레콤 오픈 2021' 챔피언 김주형(19·C.대한통운)은 최근 유러피언 투어 오메가 유러피언 마스터스를 뛰고 복귀한 장이근(29·신한금융그룹), 코리아투어 통산 10승의 '베테랑' 강경남(39·유영



이원준



박상현



서요섭

윤석민(36·A)은 12조로 현정협(39·쿠인)과 이근호(36·메디코이)와 1번홀에서 오전 8시 40분 티오프한다.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며 KPGA 주관 방송사인 JTBC 골프를 통해 매 라운드 오전 11시부터 생중계된다. 네이버TV와 카카오TV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 /최진화 기자

제약)과 오전 7시 50분부터 10번홀(파4)에서 플레이한다.

2011년 투수 4관왕 출신으로 KPGA 코리아투어에 추천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